



무진장·임실 동호인, 진안에서 당구로 하나되다

진안군 진안읍 3개 당구장에서는 지난 24일 '2025년 무진장·임실 3쿠션 당구대회(진안군체육회 주최, 진안군당구연맹 주관)'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진안군과 인접한 무주, 장수, 임실 당구 동호인 110명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는 동시에 우정을 나누며 지역 간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 우승 김영부(임실군), 준우승 이준호(진안군), 공동 3위 하영욱(장수군)과 하영호(임실군) 선수가 각각 올랐으며, 하이런상에는 전창민(무주군)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정병은 진안군체육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무진장·임실 당구 동호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명품농업대학 한우반 교육생, 한우농가 방문

남원명품농업대학 한우반 교육생은 최근, 정읍시 청년농업인이 운영하는 한우농가 2개소를 방문했다. 이는 한우반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농 아이디어와 동기 부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생들은 △스마트 축사 관리 시스템 △한우 사양관리 기법 △청년농업인의 차별화된 경영전략과 노하우 등을 배우고 현장에서 농가 대표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축산업 발전 방향과 미래비전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정읍시 청년농가 2곳은 자동급이, 환기, 온습도 조절 인공수정 등 스마트 축산 시설을 적극 도입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선도농가로 주목받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청하면 복지기동대 운영회의·안전교육 실시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병연)가 25일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복지기동대 운영회의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회의는 상반기 복지기동대 추진 활동내역 보고와 하반기 대상자 발굴논의,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능률적 작업수행을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테니스 동아리, 전국 최강 입증

2025년 국토정중앙배 대학동아리 테니스 대회서... 남자 단체전 우승

전북대학교가 '2025 국토정중앙배 전국대학동아리 테니스대회'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 대회는 지난 16~20일 양구군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47개 팀, 94명 등 총 1,929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에 전북대는 예선에서 한국교통대를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 32강에서는 서강대와 폴세트 접전을 펼쳐 5번 복식조의 극적인 승리로 16강행을 확정지었고, 16강에서는 서울대를 상대로 예이스 김동우가 마지막 단식에서 승리하며 8강에 올랐다.

8강에서는 카이스트를 4대1로 완파하고 4강에 진출. 서울과학기술대를 상대로 단식 1승과 복식 2승을 따내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는 전통의 강호 고려대였다. 전북대는 초반 2번 단식과 3번 복식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으나, 1번 복식 황진현·주원 조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흐름을 되찾았다.

이어 5번 복식 이승철·박성환 조가 승리를 따내며 승부를 최종 단식으로 끌고 갔다. 마지막 4번 단식에서 김동우가 타이브레이크 접전 끝에 승리를 확정지며 3



대 2로 역전 우승을 거뒀다.

전북대 테니스동아리 황진현 회장은 "Ace 선배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며 흘린 땀의 결실이 우승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훈련을 이어가 전국 최강 동아리의 명성을 지켜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 등, 업무협약 체결·봉사활동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 상상우리청년연대(회장 한유)는 장수읍자율방범대(대장 김영국)와 지난 22일 상호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봉사활동을 전개 하였다.

이번 협약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두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식에 이어 상상우리 청년연대회원(22명) 및 장수읍자율방범대 회원은 장수읍 동촌마을 경노동에서 건강새마을 족욕 맛사지를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지역주민과 함께 체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였다

한유 청년연대 회장은 이번 교류와 봉사활동을 계기로 양 단체는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공동체 장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북소방, 돌봄 공백 아동세대에 화재안전물품 보급

14개 시군·화재 취약계층 471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패치 설치 지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돌봄 공백 아동 세대 대상 '화재안전물품 무상 지원 사업'을 본격 보급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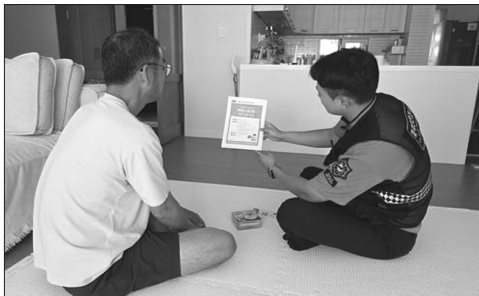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25일과 7월 2일, 부산에서 보호자 부재 중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정책으로, 도내 471가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원 물품은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용 소화패치로, 전기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주택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고 초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설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진행하며, 화재 예방 수칙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생활 밀착형 안전교육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사업은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직원들이 조성한 '119안전복지기금'과 한국소방시설협회 전북도회의 기증 물품으로 추진되며, 신청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 내 '돌봄세대 지원서비스' 메뉴를 통해 가능하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보급 사업이 돌봄 공백 아동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뉴를 통해 가능하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보급 사업이 돌봄 공백 아동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봉남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고구마' 수확 나눔

봉길제시 봉남면 행정복지센터는 25일 주민자치위원회(회장 황의모) 등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이웃에게 희망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직접 재배한 '사랑의 고구마'를 수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확한 고구마는 지난 4월 고구마순을 식재하고 약 4개월 동안 잡초제거 등 정성스레 경작한 햇고구마로 봉남면 내 소외된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황의모 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땀 흘려 가꾼 고구마를 이웃들께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나성희 봉남면장은 "이른 아침부터 따뜻한 봉남면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린 위원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을 계속 이어 나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남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고추장 나눔 사업 등 매년 봉남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특색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역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용지면 복지기동대,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활동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경민)가 지난 22일 관내 취약계층 약 8세대를 방문해 생활 안전 손잡이 설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화장실·출입문·거실 등 낙상 위험이 높은 주거공간에 맞춤형 손잡이를 설치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동대원들은 대상자의 이동 동선을 세심히 고려해 신속하게 설치를 마무리하고, 주거 안전을 세심히 점검했다.

특히 대원들은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불편사항과 건강 상태를 살피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생활 밀착형 복지 활동을 이어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올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